

## Report on Korean War POW – translated by Elena Chang

한국전쟁포로에 관한 보고서

*Introductory and greeting*

개요와 인사

It is my greatest opportunity to report concisely to all of you my long research about the true situation of Korean War POW still in the hand of North Korea with whom we, the UNC (United Nations Command), fought against about 50 some years ago. However, the elapse of 53 years ever since the treaty and the armistice agreement took place, there are still more than 500 of surviving former POW retained in the hand of North Korea in spite of their earnest wish and burning desire to be repatriated to their homeland.

우리 국제연합사령부 (UNC)가 50여년도 전에  
 싸웠던 북한의 손에 아직도 잡혀있는  
 한국전쟁포로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제가 오랫동안 조사해온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여러분 모두에게 보고하게 된  
 것은 저한테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5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조국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진실한 청원과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500명이 넘는 전직 전쟁포로들이  
 북한의 손아귀에 잡혀 있습니다.

My comrade Lt. Cho, former POW was captured in the front by Chinese Army in 1950 and was handed over to North Korean Army later. He escaped from North to South Korea in 1994, after 43 years of his hellish captive life in the hand of North Korea. He is going to tell you about his horrible POW life in North Korea later on.

저의 동지이자 전직 전쟁포로인 조 중위는  
 1950년 전방에서 중공군에게 사로 잡혀 그  
 이후 북한군에 넘겨졌습니다. 북한땅에서  
 지옥같은 43년의 포로생활을 겪은 후 조  
 중위는 1994년에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왔습니다. 잠시 후에 그가 북한에서  
 전쟁포로로서 감내한 끔찍한 삶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The Brief Background of Korean War and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POW Exchange Treaty*

한국전쟁의 간략한 배경설명, 휴전협정,  
 그리고 전쟁포로 교환 협정

The Korean War outbreak ignited by the invasion of North Korean Army into South on June 25<sup>th</sup>, 1950, and lasted a little more than three years.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on July 27<sup>th</sup>, 1953 by UNC senior Delegate, Lieutenant General William K. Harrison and by Nam Il, Senior Delegate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Prior to this agreement, the POW Exchange Treaty took place on June 3<sup>rd</sup>, 1953 signed by the same delegates both sides.

한국전쟁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남한을

침략한 북한군에 의해 촉발되어 3년이  
 조금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  
 국제연합사령부측 수석대표인 윌리엄 K.  
 해리슨 중장과 북한인민군과  
 중국인민자원군측의 수석대표인 남 일이  
 휴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 휴전협정에  
 앞서 , 전쟁포로 교환협정이 1953년 6월 3일  
 체결되었고 역시 양측을 대표한 이  
 두사람이 서명했습니다 .

After my research in length and depth on the POW problem, I am compelled to raise two issues here; first is the legal matters and second is the rights of POW, which specifically state in the Geneva Convention.

전쟁포로 사안에 관해 오랫동안 깊게  
 연구한 후 ,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첫번째는 법률적  
 문제들이고 두번째는 제네바 협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전쟁포로의 권리에  
 대해섭니다 .

- a) The Legal Aspect:
- a) 법률적 측면

The spirits of the POW Exchange Treaty is basically humanitarian basis in accordance with the Geneva Convention<sup>1</sup> of 1929 and 1949.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or North Korea) ratified it in 1949 and the United States ratified the Convention later in 1950.

전쟁포로 교환협정의 정신은 1929년과  
 1949년에 비준된 제네바협정 에 따라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에 기초합니다 .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DPRK  
 혹은 북한 )은 제네바 협정을 1949년에  
 비준했으며 미국은 1년뒤인 1950년에  
 비준했습니다 .

In the Treaty, the Paragraph 1 of General 1 states: “In order to ensure that all prisoners of war have the opportunity to **exercise their right to be repatriated following and armistice**<sup>2</sup>...” and article 4 of the Treaty states: “**All prisoners of war who have not exercised their right of repatriation following the effective date of the Armistice Agreement shall be released**<sup>3</sup>...” This article is obviously based on the spirit of Article 118 of Geneva Convention of 1929 and 1949 revision, which states: “Prisoners of war

<sup>1</sup> See attached Ref.1 (If not attached, download “Geneva Convention.”)  
 1 첨부된 참고 1을 참조하십시오 . (첨부되지 않았으면 “제네바 협정 ”을 다운받으십시오 .)

<sup>2</sup> See attached Ref.3 (p.1 Art.1 under 1 General)  
 2 첨부된 참고 3을 참조하십시오 . (첫번째 페이지에 있는 제 1 일반조문의 제 1조항 )

<sup>3</sup> See attached Ref.3 (2<sup>nd</sup> p. Art. 4 under “Custody of Prisoners of War”)  
 3첨부된 참고 3을 참조하십시오 . (두번째 페이지에 있는 “전쟁포로 수감 ”제하의 제 4조항 )

shall be released and repatriated without delay after the cessation of hostilities<sup>4</sup>.”

제네바협정 내용중 제 1 일반조문의 1번 단락에 보면, “모든 전쟁포로가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 라고 되어있고 동 조약의 제 4 조항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휴전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조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모든 전쟁포로는 석방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명백히 1929년의 제네바 협정과 1949년 개정판의 제 118 조항의 정신에 기초합니다. 제 118 조항에는 “전쟁포로들은 적대상태가 끝나는 즉시 지체없이 석방되어 환송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rough all the stipulations of the Treaty, the emphasis is primarily on the POWs’ right of repatriation, and based on that, the POW exchange took place on **voluntary repatriation basis or volunteer for volunteer basis**<sup>5</sup>.

제네바협정의 전 규정을 통해, 주로 강조된 것은 전쟁포로의 귀환 권리며, 거기에 근거해, 한국전 전쟁포로교환은 자발적인 귀환 원칙 혹은 자원자 대 자원자 원칙에 의거해 이루어졌습니다.

When the Armistice Agreement took place, the total number of POW held in the hand of North Korea was **92,970**<sup>6</sup> according to the paper submitted by the North Korea to UNC. Though, the total number of repatriation of POW to South Korea was only **13,444**<sup>7</sup>, of which **3,746 were U.S. Army** and **8,321 were mostly former Korean Army**, and the rest 79,526 POWs were kept on the pretext of “**volunteers to stay in land of paradise in North Korea.**”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북한이 국제연합사령부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북한에 억류된 전쟁포로는 모두 **9만 2천 9백 일흔 명**<sup>6</sup>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으로 돌아온 전쟁포로의 총 숫자는 **1만 3천 4백 마흔 네명**<sup>7</sup> 뿐이었습니다. 이 중 **3천 7백 마흔 여섯명이 미군** 이었고, 다른 **8천 3백 스물 한명은 대부분 전직 한국군**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만 9천

<sup>4</sup> See attached Ref.1 (Art. 118 under Sec.11 “Release and Repatriation...” in Geneva Convention) 4첨부된 참고 1을 참조하십시오. (제네바협정 중 제 11섹션 “석방과 귀환” 제하의 제 118조항 )

<sup>5</sup> See attached Ref.3 (p.2 Art.4 under “Custody of...” ) 5첨부된 참고 3을 참조하십시오. (두번째 페이지의 “...의 수감” 제하의 제 4조항 )

<sup>6</sup> See attached Ref.4 (B) “Casualty Figures...” 6첨부된 참고 4(B) “희생자 숫자 ...”를 참조하십시오.

<sup>7</sup> See attached Ref.5 Appendix B 7첨부된 참고 5 부록 B를 참조하십시오.

5백 스물 여섯명의 전쟁포로들은  
 “지상낙원인 북한에 자발적으로  
 남기로 했다”라는 핑계하에  
 억류되었습니다

However, my research shows that there is a big discrepancy between the total number of POW (92,970) held in the hand of North Korea and the total number of **MIA** reported to UNC which was **470,267**<sup>8</sup>. According to my experience in the front, the majority of MIA became POW later on. Thus, there is a **discrepancy in the number of 390,000 armies** between the number of POW and of MIA, which wa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Red Army had incorporated the ROKA (Republic of Korea Army) POWs into its regular armies after a few days of re-education and training**<sup>9</sup>.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에  
 억류된 전쟁포로의 전체숫자 (92,970명)와  
 국제연합사령부에 보고된 **임무수행중**  
**실종자** (Missing In Action)의 전체숫자인 **47만 2백**  
**예순 일곱명**<sup>8</sup>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방에서의 제 경험으로 볼 때,  
 실종자의 대부분은 나중에 전쟁포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쟁포로 숫자와  
 실종자 숫자 사이에는 **39만명이라는**  
**수치상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북한의 붉은 군대가 한국군  
 전쟁포로들을 단 며칠간의 재교육과  
 훈련을 거쳐 자신들의 정규군대에  
 통합시켰기 때문입니다<sup>9</sup>.

This incorporation of the POWs to the Red Army was obviously a breach and in violation of Geneva Convention Article 7, 22, and 23<sup>10</sup>.

전쟁포로들을 이렇게 붉은 군대에  
 합류시킨 것은 명백히 제네바 협정을 어긴  
 것이며 제네바 협정 제 7, 22, 그리고 23 조항의  
 위반입니다<sup>10</sup>.

On the other hand, the North Korea had returned only 13,444 POWs to the South (to UNC) out of the total 92,970 POWs. The non-repatriated 79,526 POWs were held by the Red Army **under the pretext of “volunteers to stay in North.”** However, my study shows otherwise<sup>11</sup> and the recent news coverage done by Saegae daily newspaper in

<sup>8</sup> See attached Ref.4 (B) “Casualty Figures...”

<sup>8</sup> 첨부된 참고 4(B) “희생자 숫자 ...” 를 참조하십시오

<sup>9</sup> See p.136 and p.142 of book “US. Army in the Korean War” edited by Dr. Walter G. Hermes, and published by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in 1988

<sup>9</sup> 월터 G. 허미스 박사가 편집하고 미군역사 담당  
 사령관실이 1988년에 출판한 “한국전쟁에서의  
 미군”중 136 페이지와 14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up>10</sup> See attached Ref.1

<sup>10</sup> 첨부된 참고 1을 참조하십시오

<sup>11</sup> See attachment statement, Ref.6

<sup>11</sup> 참고 6의 첨부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South Korea reveals the contrary<sup>12</sup>. Besides these violations and deceptions, there are innumerable violations and breaches of the Geneva Convention,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POW Exchange Treaty done by the North Korea.

다른 한편, 북한은 전체 9만 2천 9백 일흔 명의 전쟁포로들 중 단지 1만 3천 4백 마흔 네 명만을 남한으로 (국제연합 사령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귀환하지 못한 7만 9천 5백 스물 여섯명의 포로들은 “자의로 북한에 남는다”는 구실하에 붉은 군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연구가 그것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며 <sup>11</sup> 남한의 세계일보의 최근 보도도 실체는 그 정반대임을 드러냅니다. <sup>12</sup> 이러한 협정위반과 기만외에도, 북한은 무수히 많이 제네바협정, 휴전협정, 그리고 전쟁포로 교환협정을 위반해 왔습니다.

b) The Aspect of Human Right:

b) 인권 측면

As I mentioned earlier, the spirit of Geneva Convention i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POW which also says in every articles and clauses of the Convention. The Article 3 (1) <sup>13</sup> expressly states that “Persons taking no active part in the hostilities, including members of armed forces who have laid down their arms and those placed hors de combat by sickness, wounds, detention, or any other cause, shall in all circumstance be treated humanly...” Since the DPRK ratified the Convention in 1949, they are bound to abide this Convention. However, the reality has been so cruel to all captive POWs. The POWs were labeled as *Traitor of Brethren* or *Cat’s Paw of Imperialist* not to mention that their rights have been deprived<sup>14</sup>.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제네바 협정의 정신은 전쟁포로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는 제네바 협정의 모든 조항과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3조 1항 <sup>13</sup>은 분명하게 “무기를 내려놓았거나 질병, 부상, 감금, 혹은 그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 전투력을 잃은 군인들을 포함해,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1949년에 제네바 조약을 비준했으므로, 이 조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포로들이 저한

<sup>12</sup> See attached report, Ref.7 & 8

12 첨부된 보고서와 참고 7, 8을 참조하십시오.

<sup>13</sup> See Geneva Convention Art.3

13 제네바 협정 제 3조항을 참조하십시오.

<sup>14</sup> See the copy of Lt. Cho’s speech made last year at Capitol Hill

14 조 중사가 작년에 미 국회의사당에서 한 연설의 사본을 참조하십시오.

현실은 처절합니다 . 전쟁포로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박탈당한 것은 물론  
 거래의 반역자 내지는 제국주의자의  
 고양이 발 이라고 낙인찍혀 있습니다 14 .

You are going to hear soon Lt. Cho's hellish experience of his captive life in North Korea. Every media reports that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re so much depressed and deprived. This is so much true and cruel to all POWs.

여러분께서는 곧 조 중사로부터  
 북한에서의 지옥같았던 포로생활  
 경험담을 들으시겠습니다 . 모든 언론이  
 북한의 인권은 억압되고 박탈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 이는 모든 전쟁포로에게도  
 적용되는 더할 나위없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

Ladies and Gentlemen, the South Korean Army fought side by side with their allied 15 nations led by US Army under UNC against the invasion of Communism on Korean Peninsula for democracy and freedom 50 some years ago. Our mission will never be accomplished as long as our comrades at the war are still in the hand of North Korea. A lot of non-repatriated POWs of 79,526 are perished. But in the neighborhood of 500 are still alive. These survivors are dying day by day with longing desires to go back home before they breathe their lasts. As a comrade-in-arm, I sincerely appeal to you to help us to bring these pitiful and powerless old soldiers back home before they reach their longevity, through the United Nation since we fought the war under the United Nation's flag.

신사숙녀 여러분 , 한국군은 50년 전에  
 미군과 국제연합사령부가 이끈 15개의  
 우방국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려고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싸웠습니다 .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 북한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한  
 우리의 사명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7만 9천 5백 스물 여섯 명의  
 귀환하지 못한 전쟁포로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뒀습니다 . 그러나 ,  
 500명 남짓되는 분들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 이 생존자들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간절한 열망을 지닌 채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 함께 무기를 들었던 동지로서 ,  
 저는 여러분께 이 불쌍하고 힘 없는  
 노병들이 수명이 다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십시오  
 성심껏 호소합니다 . 우리가 국제연합의  
 깃발아래 싸웠으므로 저희의 구호노력도  
 국제 연합을 통해서 벌입니다 .

INVOICE

Service provided: Translation of "Reports on POW"  
from English to Korean

Provider: **YunJung Chang**  
17143 Lisette Street  
Granada Hills, CA 91344  
310-266-3004 cell  
changyunjung@yahoo.com

Provided: Thomas Byun  
714-717-1121  
volcano21c@hotmail.com

Rate: \$0.20/word (in English)

Total number of words (incl. footnotes and endnotes) calculated by MS

Word's "word count" function: 1,226

**Total translation fee: \$245.20**

Date: April 30, 2006